

<특 집Ⅱ>

새로운 봉사영역 : 독서치료에 대하여



최 월순*

공공도서관이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온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현재에 이르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으로 본다면 도서자료의 수집과 축적, 이용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독서인구저변확대를 위한 독서진흥활동을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진흥활동은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함으로써 많은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교양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에는 각종 디지털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자료의 이용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구도의 변화와 개인주의,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인간소의 등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냥 자율적인 책 읽기의 권장만으로는 더 이상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좋은 책 한 권이 개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 강원도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문헌정보과장, cwsonee@hanmail.net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독서지도와 심리상담이 결합한 독서치료서비스를 새로운 봉사영역으로 제시해 본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 과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 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서치료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 적응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적당한 독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요법의 한 분야이다.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도서관 운영의 마인드 형성과 실제적 전문성을 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서교육과 심리상담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독서치료에 대한 교육과정이 일반화되지 못한 실정에서 사서들이 직접 독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책' 과 '독서활동' 과 크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독서치료는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분야이다.

개개인의 마음상태나 상황에 맞게 독서치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독서자료와 함께 독서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서관에 있는 많은 자료가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독서지도 경험과 소양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서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쉽게 독서치료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Ramses II, BC 1300)는 테베(Thebes)에 있던 자신의 궁전도서관을 '영혼의 진료소' (dispensary of the soul) 또는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 (Healing place of the soul)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스위스에 있는 St. Gall의 중세 대수도원 도서관에는 '영혼을 위한 약 상자'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책을 지식을 전달해주는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의 매체로도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책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자원으로, 도서관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장(field)으로 여겼던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의 마음의 상처와 이상심리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아주 작은 상처이었을 때 해소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독서치료서비스를 도서관의 새로운 봉사 영역으로 개척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